

불륜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 본인외도 용인과 배우자외도 불용인의 이중매개효과와 결혼상태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이원준¹, 이희진^{2*}

¹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The Effects of Individuals' Perception toward Extramarital Affair on the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Double Mediating Effects of the Acceptance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Marital Status

Won-June Lee¹, Hee-Jin Lee^{2*}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²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 Science, Handong Glob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불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지만, 약 16.4%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본인의 외도에 비해 배우자의 외도에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불륜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록 본인의 혼외관계를 더 많이 용인하고,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넷째, 미혼집단은 배우자외도 불용인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부정(negatively)효과를 미쳤고, 기혼집단에서는 본인외도 용인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정적효과를 미쳤다. 다섯째, 미혼집단은 '불륜인식은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배우자 외도 불용인'을 완전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결혼상태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제어 : 불륜, 혼외성관계, 개방성, 외도용인, 결혼상태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data analysis obtained by surveying 655 adult men and women.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overall, individuals' perception of extramarital affair is negative, but about 16.4% respondent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it. Second, the respondents have a more critical perception of their spouse's extramarital affairs compared to their own. Thirdly, the less critical perception of extramarital affair, the more acceptance of my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less tolerance of my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regardless marital status. Forth, while the less toler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less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among unmarried group, the more acceptance of my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more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among married group. Lastly, individuals'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only among unmarried group,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affairs and the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is fully mediated by the effect of 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affairs.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is proved.

Key Words : Extramarital Affair, Extramarital Sex, Openness,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Marital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Hee-Jin Lee(hjlee@handong.edu)

Received April 8,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Revised July 31,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간통죄는 혼외성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강력한 사회적 장치였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래 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프랑스(1791년)는 약 227년 전에 폐지하였고, 덴마크(1930년), 일본(1947년), 독일(1969년)등도 간통죄를 폐지한지 오래되었다[1].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간통죄를 존치시켜왔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고(2015.2.10)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2]. 혼외 성행위를 억압할 수 있는 사회적 각본(social script)으로 작동하였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혼외관계에 대한 징벌적인 사회적 인식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혼외성관계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Hite나 Weeks같은 선행연구자들은 어떻게 성충동(sexual drive)을 성행위(sexual action)로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교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다고 하였다[3-5]. 간통죄 폐지와 함께,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정립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성차별적인 이중성윤리도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고, “부부간에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혼외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인식대신, 결혼관계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성행위는 도덕적이고, 착취하는 사이의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2, 5]. Coltrane와 Collins는 과거에는 성관계가 행해지던 “자리(location)”가 중요했다면, 오늘날은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혼제도권 안에 있는 합법적인 부부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상호존중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훼손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도덕한 것이다. 반면에 혼외관계에서 발생한 성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율성 및 존엄성이 존중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을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혼외성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인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회의 지배적인 성윤리 및 성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불륜(adultery)에 대한 낙인적 인식도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간통죄가 존속하였을 때는 혼외성관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적(혹은

허용적)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륜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인의 혼외성관계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가 폐지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윤리와 성규범이 변화하고 있지만, ‘내로남불’과 같은 왜곡된 각본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성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소 자조적인 용어(pejorative term)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릇된 신념체계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왜곡된 각본(script)이다. 이러한 ‘내로남불’의 잣대에 의하면, 본인의 외도에 대한 평가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혼외성관계 개방성 관련 요인들을 탐색함에 있어서, 불륜인식이 미치는 효과 뿐 만 아니라, 본인의 외도 및 배우자 외도에 대한 인식이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도 함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미혼자들이 보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일처제라는 결혼제도권 안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은 미혼자들보다 혼외성관계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기혼자들은 혼외성문제를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문제로 인식하여 혼외성관계에 대해서 다소 용인적일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감이 높은 미혼자들은 기혼자들보다 혼외성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혼외성관계 개방성과 관련요인들의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서, 연구대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구별되는 두 집단(미혼집단, 기혼집단)을 함께 포함시켜, 결혼상태(미혼, 기혼)는 중요한 조절변인(moderating variable)로 고려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상태(미혼, 기혼)을 단순히 하나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결혼상태가 한 개의 종속변수(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결혼상태를 조절변수로 분석할 경우,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결혼상태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볼 수 있어, 혼외성관계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올

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상태를 조절 변수(moderator)로 분석하는 것은, 결혼상태를 단순히 하나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자들과 기혼자들 간의 혼외성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고, 미래의 기혼자가 될 수 있는 미혼자들의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은 물론,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결혼상태에 의해 어떻게 상이한 양상을 갖는지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혼외관계 연구 대상에서 기혼자 뿐 만 아니라, 미혼자들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성은, 기혼자들의 혼외관계 상대는 기혼자가 아닌 미혼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하였고, 미혼자는 미래의 기혼자이기 때문에, 미혼자들의 혼외성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혼외성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족 및 부부연구 영역에서도 의외로 상당히 희소하다[5]. 혼외관계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혼외관계의 평가(판단)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이 없이 이루어졌거나, 조사 대상이 특정 성별(여성 혹은 남성)에만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7-12]. 함인희는 여성가족부의 한국가족의 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부부의 성관계 의식을 조사하였다[5,13].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인식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의 그 의의가 크다[5]. 그러나 자료분석 방법이 주로 기초분석(예: 빈도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방법론적 한계점도 있어, 혼외관련 인식과 주요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파악이 가능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혼외성관계인식 관련 연구에서, 본인의 외도 뿐 만 아니라, 배우자 외도에 대한 인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규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불륜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본인 외도 용인 및 배우자 외도용인의 매개효과, 그리고 결혼상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건강한 성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문헌검토

2.1 혼외관계 관련개념

혼외관계(extra marital relationship)의 통상적인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14]. 혼외관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간에도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2].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혼외관계 개념들을 검토해보면, 천주현과 구명숙은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하였다[8,9]. 김예숙과 남은주는 혼외관계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여, 육체적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관계까지 포함시켰다[7,15]. 앞서 소개한 두 가지 혼외관계 개념에서는 “배우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혼외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영숙과 이영화, 그리고 전요섭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유무를 떠나,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감정적 교류 및 성적 관련을 맺는 것”으로 정의하여 혼외관계의 개념을 확장시켜 소개하였다[12,16]. 전요섭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서 정서적 외도가 성적 외도보다 배우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Green과 Sabini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혼외관계에서 정서적 외도가 중요한 측면임을 부각하였다[16,17]. Harley는 혼외관계에서 정서적인 것과 성적인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다던가,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1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불륜, 외도, 혼외 성관계 등)의 조작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불륜(adultery)’은 간통죄가 존속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성행위에 초점을 둔다. ‘외도(extramarital relationship)’의 조작적 개념은 Harley가 제시한 혼외관계의 개념에서 제시했던, 정서적 외도, 성적 외도, 정서적·성적 외도 등의 포괄한 개념을 사용한다[18]. ‘외도용인(불용인)’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 성적 외도, 혹은 정서적·성적 외도 행위를 용인(혹은 불용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혼외 성관계 개방성’은 “부부간에 어떤 규제도 없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8].

2.2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Weis와 Slosnerick는 혼외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혼외관계를 거부’하거나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연속선상(continuum)에서 설명하였다[19]. ‘혼외관계를 거부하는 각본’을 가진 사람은 부부관계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에 의해서만 정서적,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를 기대한다[10,20]. 그러므로 혼외관계는 부부간의 친밀감과 결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10]. 반면,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각본’을 지닌 사람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결혼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성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혼외관계를 개인의 성장의 자원으로, 친밀감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10]. ‘혼외관계를 거부하는 각본’을 지닌 사람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혼외 성격 및 혼외성 허용에 관한 통계정보는 조사 시기, 대상, 연구방법 등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5,7,11,12,21,22]. 선행연구에서 밝힌 통계자료를 통해서, 혼외 성관계 경험자 혹은 혼외 성관계에 허용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Weis와 Slosnerick가 언급한 두 가지 각본 중에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각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19]. 혼외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Weis와 Slosnerick가 언급한 두 가지 각본, 즉 ‘혼외관계를 거부하는 각본’과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각본’의 연속선상(continuum)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기 위하여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9]. 성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윤리가 약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결혼생활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각본’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간통죄 폐지가 ‘혼외관계를 거부하는 각본’을 약화시키고,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각본’을 좀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사람들은 불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지 혹은 수용적인지(연구문제 1), 불륜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혼외성관계)에 대해 보다 개방적(혹은 폐쇄적)이게 하는데 얼마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2)는 실증연구를 통해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3 ‘내로남불’ 관련 이론

‘유연화 귀인이론(flexible attribution theory)은 ‘내

로남불’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rationale)가 될 수 있다. ‘유연한 귀인’은 행위의 결과가 성공적인 것일 때에는 자신에게 귀인하고, 실패일 때에는 환경에 귀인 하는 현상이다[23-25]. 한국과 같이 체면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본인의 혼외관계가 드러났을 경우,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어 욕구가 강할 것으로 사료된다. 귀인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초점을 두어 정당화 시키려 할 것이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성향’(또는 기질)에 초점을 두어 비난(공격)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외도보다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연구문제 3).

부가하여, ‘본인 외도용인’ 수준과 ‘배우자 외도불용인’ 수준은 각각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나 더 증폭(혹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본인 외도용인’과 ‘배우자 외도용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연구문제 4). 배우자의 외도를 더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혼외성행동에 대해 더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효과에, ‘본인 외도용인’보다 ‘배우자 외도용인(불용인)’이 더 강력한 매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나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가정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행동과 성인식간의 높은 상관성이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10,12]. 사람들의 행동은 인식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혼외성관계 개방성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2.4 결혼상태의 조절효과

미혼자에 비해서 기혼자들은 혼외관계 문제를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로 간주하여 응답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다소 이상적인 자신의 희망 및 기대에 기초하여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용인수준은 자신의 외도의 용인 수준과의 차이가 기혼자들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연구문제 3). 미혼자가 지닌 불륜인식이 이들의 혼외성관계 개방성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본인 외도에 대한 용인정도 보다 배우자외도의 용인정도가 기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연구문제 4).

혼외관계연구에서 기혼자들 뿐 만 아니라, 미혼자들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혼외관계인식에 대한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5,12,26], 배우자외도의 애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럴 수 있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 과거에 비해서 미혼자들의 성적 활동이 활발하고, 적지 않은 미혼자들의 혼외관계 대상이 기혼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문화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집단(미혼, 기혼)의 혼외관계 인식을 비교·분석해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세대간의 차이를 파악해봄으로써, 혼외관계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자들 뿐 만 아니라, 미래의 기혼자가 될 수 있는 미혼자들을 위한 혼외문제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도, ‘결혼상태’의 조절효과 분석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Fig. 1에서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질문(1-5)는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1. 불륜(adultery)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2. 불륜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 연구질문3. 본인의 외도에 대한 용인정도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불용인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4. ‘본인 외도용인’ 혹은 ‘배우자 외도 불용인(혹은 불용인)’은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매개작용을 하는가?
- 연구문제5.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본인 외도용인’ 혹은 ‘배우자 외도 불용인’의 매개효과는 결혼상태(미혼/기혼)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조절(moderating)되는가?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연구이다. 인터넷 서베이 패널업체(두잇서베이)에 유료패널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업체에서 설문링크를 발송하여 본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진 25-99세의 남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2개월동안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2015.12-2016.1). 전체 표본의 수는 655명이다. 남성(329명) 여성(326명) 그리고 기혼자(328명)와 미혼자(337명)의 비율이 균형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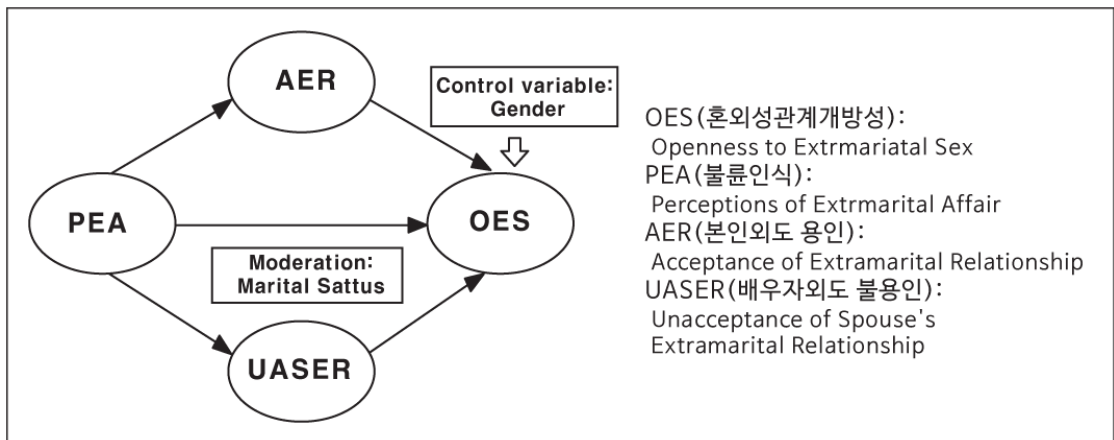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도구

3.3.1 종속변수: '혼외성관계 개방성'

'혼외성관계 개방성' 척도는, Thomson이 제시한 혼외관계 세 유형(정서적 혼외형, 성적 혼외형, 정서 및 성적 복합형)을 토대로 하여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2,27]. 척도 문항내용은 "부부 간에 어떤 규제 없이 배우자외의 이성과의 성행동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혼외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혼외 성관계를 인정하는 정도" 등을 묻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5점 척도(1점="아주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658 이다.

3.3.2 독립변수: '불륜인식'

'불륜'(perceptions of extramarital affair: PER)은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Hudson과 Murphy 가 성적 표현에서 진보지향과 보수지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 내용을 참조하여 척도 문항(2문항)을 구성하였다[28]. 문항내용은 "사회규범에 어긋난 혼외관계라도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혼외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옳지 않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척도점수가 낮을수록 불륜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값은 .653이다.

3.3.3 매개변수: '본인 외도 용인', '배우자 외도 불용인'

'본인외도용인'(acceptance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 AER)과 '배우자 외도 용인'(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UASER)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인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본인 외도용인' 척도는 본인의 외도를 얼마만큼 용인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배우자 외도 불용인' 척도는 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 두 척도는 각각 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내용은 Thompson이 구분한 혼외관계의 세 유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27]. 문항 내용은 동일하나, '본인 외도용인' 척도는 평가대상이 '본인의 외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고, '배우자 외도불용인' 척도는 배우자의 외도에 초점을 둔 평가이다. '본인외도 용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46이고, '배우자 외도 불용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66이다.

3.3.4 조절변수: 결혼상태

'결혼상태'(0=미혼, 1=기혼)는 이항 변수이다.

3.3.5 통제변수: 성별

'성별'(0=남성, 1=여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성인식 및 성행동에서의 성별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성별 차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다[5,11,12].

4. 연구방법

4.1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는 남성(329명)이 50.2%이고, 여성(326명)이 49.8%로 성비균형을 이루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기혼자(328명)가 48.5%이고 미혼자(337명) 51.5%이다. 기혼자는 미혼이라고 응답한 대상 이외에 혼인관계를 경험한 이들을 기혼그룹에 포함시켜 현재 혼인상태 중인 경우와 이혼이나 별거 또한 포함되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30대(308명)가 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28.1%, 184명), 20대(13.3%, 87명), 50대(9.6%, 63명) 그리고 60대 이상(13명, 2%) 순이다. 학력 수준은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약 80%(533명)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0%(122명) 미만이어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4.2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혼외성관계 개방성', '불륜인식', '본인 외도용인', '배우자 외도불용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 각 변수의 왜도값 및 첨도값을 살펴보았다. 왜도의 범위는 -1.247에서 .692로 절대값이 2를 초과하지 않았다(Table 2 참고). 첨도의 범위는 -.675부터 1.45으로 절대값이 7미만이어서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29] 연구모형에 포함된 네 개의 주요 변수들('혼외성관계 개방성', '불륜인식', '본인외도용인', '배우자외도불용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계수의 최고값이 .616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다.

4.3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빈도분석

종속변수인 ‘혼외성관계 개방성’(M=2.0649, 5점 척도) 척도의 평균값은 2점(“그렇지 않은 편”)에 가깝다. ‘불륜인식 척도의 평균값’(M=2.535, 5점 척도)은 ‘혼외성관계 개방성’ 척도의 평균값 보다는 약간 높지만, 척도의 중간값 수준 3점(“그저 그렇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인 외도용인’ 척도의 평균값(M=2.1842, 5점 척도)도 2점(“그렇지 않은 편”)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배우자 외도불용인’ 척도의 평균값(M=4.2687, 5점 척도)은, 4점을 초과하고 있어, 배우자의 외도에는 용인하지 않는 단호함이 엿보인다(Table 1 참고).

‘혼외 성관계 개방성’, ‘불륜인식’, ‘본인 외도용인’, 그리고 ‘배우자 외도 불용인’ 등의 각 척도들의 평균값을 살펴 볼 때, 응답자들은 혼외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내로남불’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혼집단에 비해서 미혼 집단의 네 주요 척도의 평균값이 수학적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참고). 따라서 ‘혼외성관계 개방성’, ‘불륜인식’, ‘본인 외도용인’ 및 ‘배우자 외도불용인’에 대해서 미혼자와 기혼자는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로 빈도분석을 하였다(Table 2 참고).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혼외성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진보적인 성향(4점 이상)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약 5.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혼외성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인(혹은 진보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아주 낮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혼외관계에 보수적 혹은 폐쇄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5점 척도에서 2점 이상에서 4점 미만의 범주에 속한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Weis와 Slosnerick는 대부분의 사람이 ‘혼외관계를 거부’하거나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연속선상(continuum)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19]. 이러한 Weis와 Slosnerick의 주장은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불륜인식을 보면, 응답자 중에 약 16.6%가 불륜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외도에 대해서 비교적 용인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들 중에 약 8.7%이다. 약 74.8%가 배우자 외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약 5.4% 정도로 내로남불 현상을 엿볼 수 있다.

Table 1.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Marital Status

Variables	집단	Mean	SD	t-value
Openness to Extramarital Sex(OES)	unmarried	2.0846	.9478	-.549
	married	2.0440	.9396	
Extramarital Relationship(EA)	unmarried	2.5890	1.0513	-1.151
	married	2.4953	1.0314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AER)	unmarried	2.2275	1.0717	-1.070
	married	2.1384	1.0596	
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UASER)	unmarried	4.2948	.8138	-.857
	married	4.2411	.7894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Major Variables

(N=655)

Scores	Frequency(%)			
	OES	PEA	AER	UASER
1~2	272 (41.6%)	161 (24.6%)	283 (43.2%)	7 (1.1%)
2 > 3	223 (34.0%)	220 (33.6%)	178 (27.2%)	28 (4.3%)
3 > 4	124 (18.9%)	167 (25.5%)	137 (20.9%)	129 (19.7%)
4 > 5	31 (4.7%)	96 (14.7%)	49 (7.5%)	268 (40.8%)
<=5	5 (0.8%)	11 (1.7%)	8 (1.2%)	223 (34.0%)

[Abbreviation of Variables] OES: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PEA: Perceptions of Extramarital Affair, AE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UASER: 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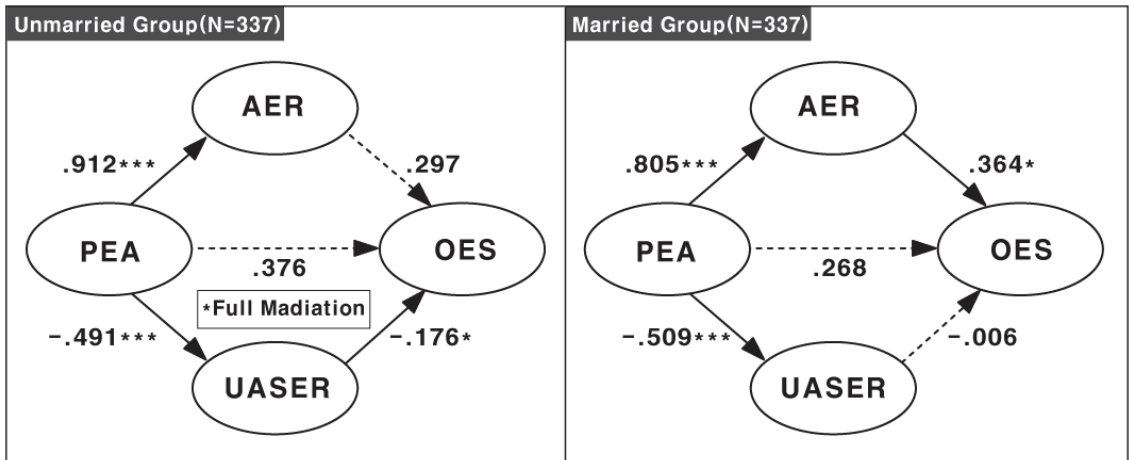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4.4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chi^2=133.109$, $df=29$, $p<.000$, $TLI=.939$, $CFI=.961$, $RMSEA=.074$)는 수용 가능한 범위임이 확인되었다. 네 개의 주요 잠재변인들을 각기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indicators)들의 요인 적재값(λ 값)이 .558~.889이고, C.R 값의 범위는 10.491~19.888이다. 유의도(p값)는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다중상관 자승값(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도 .312~.790 범위에 있어, 측정모형의 개별 항목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5 측정동일성 검증

조절효과는 다집단 분석 방법(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의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무제약 모형인 기저모형($\chi^2=279.273$, $df=78$, $CFI=.927$, $TLI=.897$, $RMSE=.063$)과 측정동일 모형($\chi^2=282.190$, $df=84$, $CFI=.928$, $TLI=.906$, $RMSE=.060$)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카이자승 차이값($\Delta\chi^2=2.917$)이 자유도차이 6 에서 임계치 값인 12.59 미만으로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어 다집단 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4.6 결혼상태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Fig. 2와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Table 3.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Direct Effect	Unmarried G.(N=337)			Married G. (N=318)		
	β	B	S.E	β	B	S.E
PEA → UASER	-.491***	-.409***	.055	-.509***	-.432***	.063
PEA → AER	.912***	.900***	.084	.805***	.822***	.086
PEA → OES	.376	.375	.301	.268	.284	.177
UASER → OES	-.176*	-.210*	.080	-.006	-.007	.095
AER → OES	.297	.300	.280	.364*	.377*	.145
GENDER → OES	-.129	-.222	.083	.011	.020	.094
Indirect Effect						
PEA → (AER) → OES	.271	.270	.763	.293	.310	.177
PEA → (UASER) → OES	.086	.086	.045	.003	.003	.052
C.I	Lo.	Hi.		Lo.	Hi.	
PEA → (AER) → OES	-1.771	.991	N.S.	-.026	.582	N.S.
PEA → (UASER) → OES	.005	.198	S.	-.115	.093	N.S.

***p<.001, **p<.01, *p<.05

[Abbreviation of Variables] OES: Openness to Extramarital Sex, PEA: Perceptions of Extramarital Affair, AE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UASER: Unacceptance of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

Model Fitness . $\chi^2=282.190$ $df=84$ $p<.000$, $CFI=.928$, $TLI=.906$, $RMSEA=.060$

미혼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불륜에 대한 인식 → 혼외관계 개방성' 경로(376)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륜에 대한 미혼자들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집단의 경우,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완전 매개작용(.086, 하한값 .086, 상한값 .198)을 하여,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륜인식'→(배우자 외도불용인)→혼외성관계 개방성 경로에 대한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륜에 대한 미혼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배우자의 외도를 불용인하는 경향이 감소되고, 배우자 외도를 용인하지 않을수록, 혼외 성관계 개방성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외도 불용인'의 완전 매개 효과는 '불륜인식'이 직접적으로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륜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외도 불용인(또는 용인) 경향이 감소될수록, 미혼자들의 불륜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혼외성관계에 대한 개방성이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미혼집단에서 '불륜인식'→(본인 외도용인)→혼외성관계 개방성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집단에서도, '불륜에 대한 인식→혼외관계 개방성' 경로(.268)는 미혼 집단에서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집단의 경우,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불륜인식'이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매개효과가 없어서, 미혼집단에서의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매개변인으로 '불륜인식'이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과 대조를 보여주었다. 미혼집단과 기혼집단 모두, '불륜인식'은 '본인 외도용인'(미혼집단 .912***; 기혼집단 .805***) 뿐 만 아니라, '배우자 외도 불용인'(미혼집단 -.491***; 기혼집단 -.509***)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본인 외도용인' (미혼집단 .297; 기혼집단 .364*) 및 '배우자 외도 불용인'(미혼집단 -.176*; 기혼집단 -.006)이 미치는 효과는 결혼상태(미혼, 기혼) 여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상당히 달랐다.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평가)하는지는 본인의 외도 및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혼집단의 경우, '불륜인식'이 '배우자 외도 불용인'(-.491***)보다는 '본인외도용인'(.912***)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두 배 이상 강하였다. 기혼집단에서도 '불륜인식'은 '배우자 외도 불용

인'(-.509***)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본인 외도용인'(.805)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사실들을 요약·정리해보면서,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응답자들의 혼외관계관련 인식(불륜인식척도 평균값=2.5435, 혼외성관계 개방성 척도=2.0629, 본인 외도용인=2.1842, 배우자 외도불용인=4.2687)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연구문제 3). 불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약 16.6%), 혼외성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인(진보적인) 성인식을 가진 사람(5.5%), 본인외도에 대해서 용인적인 사람(8.7%), 배우자 외도에 용인적인 사람(5.4%) 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연구문제 1, 3). 그러나 혼외관계 관련 척도들의 평균점수가 2점 이상에서 4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외성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문화의 한 부분인 현실에서, 극단적으로 비판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수용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을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에서의 지적이 본 연구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있음을 알 수 있다[10].

둘째, 응답자들은 본인의 외도에 비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이며 용인하지 않으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인식은 그릇된 판단에 의한 인지왜곡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배우자)의 행동은 비난하는 불건강한 심리적 방어기제(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릇된 인지왜곡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인 실천으로는, 첫째, 인지행동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합리화와 투사(projection)등의 불건강한 방어기제 사용을 막고, 건강한 대처능력이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불륜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아님은 미혼자 집단과 기혼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연구문제 2, 연구문제 5). 불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일 수록, 본인외도에 보다 용인적이었고, 배우자 외도에 대한 불용인도 감

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불륜인식'에 영향을 받은 '본인 외도용인' 혹은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미혼 집단과 기혼집단 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혼집단에서는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본인 외도용인'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혼집단에서는 미혼집단과는 상반되는 반대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혼외 성관계에 얼마나 개방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미혼자들의 경우,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인적(혹은 불용인적)인지가, 기혼자들의 경우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 얼마나 용인적(혹은 불용인)인지가 중요한 측면임을 보여준다.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 외도불용인'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연구문제 4).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배우자 외도 불용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불륜인식이 혼외성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결혼상태(미혼, 기혼)에 따라서,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불륜이 미치는 효과와 본인 외도용인 및 배우자 외도용인이 각각 미치는 효과에서 상이한 양상이 발견되어, '결혼상태'의 조절효과가 밝혀졌다(연구문제 5). 혼외성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들이 미치는 효과는 결혼상태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혼외성관계에 대한 개방정도는, 기혼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를 얼마만큼 개방할 수 있는지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인정할 때, 자신의 혼외 성관계도 합리화될 수 있다는 미혼자들의 인식을 반영해준다. 미혼자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성공평성에 보다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혼자들의 경우는 혼외 성관계 개방성에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이 얼마만큼 용인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외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용인적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성공평성에 대해 덜 민감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미혼자와 기혼자들이 본인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평성에 대한 인식차이는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고, 결혼생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미혼자와 배우자와 성생활 경험을 한 기혼자의 생활경험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종단연구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혼외 성관계 문제 대처를 위한 원조개입(helping intervention)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용인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평가 작업이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적 공평성은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성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성공평성에 대한 인식증진은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 정립을 위한 실천개입의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천현장과 관련학계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혼외관계문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실천개입 대상은 기혼자 뿐 만 아니라, 미혼자도 함께 포함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혼자들은 미래의 기혼자가 될 수 있고, 기혼자의 혼외관계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혼외관계관련 인식 및 반응에서의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점을 잘 반영한 혼외관계 문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식 및 성행동에서의 성별차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절변수군에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통제변수로만 분석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큰 표본을 확보하여 성별, 결혼여부, 연령 등 다양한 조절변수 군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관련 변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C. G. Park. (2010).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to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Kyung Hee Law Journal*, 45(2), 41-69. DOI : 10.5392/JKCA.2017.17.03.199
- [2] S. J. Shin. (2017).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199-211. DOI :

- 10.5392/JKCA.2017.17.03.199
- [3] S. Hite. (1994). *Women as revolutionary agents of change: The Hite reports and beyond*.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4] J. Weeks. (1997). *Sexuality and its discontents: Meanings, myths, and modern sexualities*. Routledge.
- [5] I. H. Hahm. (2012). The Gender Gap Reflected in the Sexual Relations of the Korean Family. *Women's Studies Review*, 29, 175-210.
DOI : 10.18341/wsr.2012.29.2.175
- [6] S. Coltrane & R. Collins. (2001). *Sociology of marriage & the family: Gender, love, and property*. Wadsworth/Thomson Learning.
- [7] E. J. Nam. (1998). *A Study on the Causes of Abroad in Men and Women*. Master Thesis. Daegu Hyosung Catholic University, Daegu.
- [8] J. H. Cheon. (1992). *A Study on the Permissible Behavior of Out-of-wedlock Relationship by Gende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9] Y. H. Lee & Y. S. Yi. (2007). A Study on the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523-533. UCI : G704-001335.2007.16.3.016
- [10] Y. S. Yi & Y. H. Lee. (2008).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4), 631-638. UCI : G704-001335.2008.17.4.006
- [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8). *Korean Family Surve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nsciousness of adulter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13] M. S. Gu (2001). *Experience of married women's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ir sexual subjectivity*. Master Thesis. Silla University, Pusan.
- [14] Y. S. Kim. (1995). *Is it a shadow of the extramarital system?*, Hyungseongsa.
- [15] Y. S. Jeon. (2002). Psychological Analysis and Consideration Counseling Support of Middle-aged Outer Countries. *Korea reformed theology*, 12, 339-366.
UCI(KEPA) : I410-ECN-0102-2009-230-003731493
- [16] M. C. Green & J. Sabini. (2006).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ge, and jealousy: emo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in a national sample. *Emotion*, 6(2), 330-334. DOI : 10.1037/1528-3542.6.2.330
- [17] W. F. Harley. (2011).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Revell.
- [18] D. L. Weis & M. Slosnerick. (1981). Attitudes toward sexual and nonsexual extramarital involvements among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349-358. DOI: 10.2307/351386
- [19] M. H. Kong. (2002).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20. UCI : G704-001334.2002.7.2.003
- [20] J. L. Laws & P. Schwartz. (1977). *Sexual scripts: The social construction of female sexuality*. Harcourt College Pub.
- [21] D. J. Yang & H. S. Cho. (2005). A Study on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 of Married Men and Women. *Human Life Sciences*, 8, 51-76. UCI(KEPA) : I410-ECN-0102-2009-300-001616165
- [22] Korean Institute for Sexology (2003). *Third Report on the Sex Consciousness and Sex Life of Koreans*, Korean Institute for Sexology.
- [23] J. J. Park. (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Temporal Distance on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 293-306.
UCI : G704-000203.2012.56.4.018
- [24] M. D. Griffiths. (1994). The cognitive psychology of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6(1), 31-64. DOI : 10.1007/BF01015747
- [25] D. T. Gulbert & P. S. Maline.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1), 21-38. DOI : 10.1037/0033-2909.117.1.21
- [26] D. W. Lee, H. J. Kim, S. H. Choi & S. Y. Kim. (2002). *Current state of Korean family*. Hakjisa.
- [27] A. P. Thompson. (1984).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35-42.
DOI : 10.2307/351861
- [28] W. W. Hudson, G. J. Murphy & P. S. Nurius. (1983).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19(3), 258-272.
DOI : 10.1080/00224498309551186
- [27]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ition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이 원 준(Won-Jun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복지정책, 사회문제

· E-Mail : wjlee@cs.ac.kr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문화현상, 통계

· E-Mail : hjlee@handong.edu